

상호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배재 학당 연구

성균관대 양정아

요약

이 연구는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측면에서 배재학당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재학당은 최초의 서구적 교육기관이었다. 특별히 배재학당은 설립 초기부터 자유교육의 이상을 추구하였으며, 한국문화와 서구 문화를 결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성공했고 배재학당의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를 서구 문화와 결합하여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배재학당의 설립자들을 조사할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상호문화주의 교육에 좋은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배재에서는 자유교육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펜젤러와 같은 배재학당의 설립자들은 언어학교로서 배재학당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유교양대학의 이상을 품고 배재학당의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갔다. 이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둘째로, 배재학당은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재학당의 학생들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당시 한국의 교육과정에 기초가 되었던 한문과 중국 고전 수업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한글 교육 또한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배재학당의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서양 문화의 특징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화적 발전과 문화변용을 이룰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배재학당은 상호문화주의 교육 시스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배재학당의 교육 모델은 성공적인 한국의 리더들을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독립운동가와 시인, 주시경 같은 한글 학자들을 배출 할 수 있었다. 배재학당은 이미 수행된 성공적인 상호문화주의 교육이며, 이 논문은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하였다.

주제어 : 상호문화주의 교육, 배재학당, 다문화교육, 아펜젤러, 개화기 교육

목차

I. 서론

II. 배재학당의 등장과 아펜젤러

III. 배재학당의 교육과 상호문화주의

IV. 결론

I. 서론

소수민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 담론은 나라간 이동이 활발해 지고, 국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추진해야 할 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이론 중 상호문화주의는 상호문화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전통적 유산이 강한 유럽에서 등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 교육 연구 학자인 M. Abdallah-Pretceille 에 따르면 상호문화주의란 inter라는 의미를 최대한 고려해서 생각하여야 하며, 상호작용, 교환, 장벽제

거, 상호성 등의 연대를 인정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가 가진 모든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개인 차원 뿐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등장하는 상징적 표상, 생활방식, 가치 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Maddalena De Carlop, 2011: 50) 초기에 상호문화주의는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의 단순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이었으나, 유럽연합 등에서 채택이 되고, 다양한 사회문제 속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더욱더 정교화 되었다.

상호문화주의는 강조점이 개인에 있다. 여기서 ‘개인’은 관계망 속에 놓인 개인이다. 개인은 이 관계망을 통해서 문화를 형성한다. 관계망 속에 놓은 개인은 다른 문화 특히 이질적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문화 간 차이를 인식 할 뿐 아니라 이 차이를 변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개인은 문화 간 대화의 주체로서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 간 차이를 변용시켜서 자기화시켜 나간다. 개인의 변화는 관계망을 통해서 확산되어가며,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

문화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화 이해 능력과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의 접촉이 요청된다. 간문화성(문화 간 이해능력)을 가진 개인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해 나간다. 문화 간 대화가 촉진되고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을 받아들이고, 이 도덕을 바탕으로 대화를 전개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전제를 그 바탕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적 상황에 최초로 직면한 것은 개화기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치면서 부터이다. 서구문명 속에서 성장한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상호문화적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외국인 교사들은 서구 교육이념인 자유 교육을 변용하여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문화변용의 주체로서 한국문화와 서구문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다. 이 논문은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 학교인 배재학당 교육을 평가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배재학당 설립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배재학당 설립자인 아펜젤러와 배재학당의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을 살펴 본 후, 배재학당에서 상호문화주의 교육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배재학당의 등장과 아펜젤러

1. 1880년대 상황과 개화파의 업적

1880년 조선의 상황은 매우 복잡했다. 개항을 요구하는 외국인들의 침입으로 인해, 결국 무력과 강제력에 의해 개항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빌미 삼아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방적인 개항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서양의 문화의 문물을 배우고 익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 『조선 책략』은 개화파 지식인들과 개화에 큰 이정표가 되었다. 이 책은 중국인 황준헌이 쓴 책으로 이홍장이 한국의 개화 정책에 관한 조언을 담아서 김홍집에게 전달해 준 책으로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특히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강화도 조약 이홍장의 중재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으며, 1883년 9월 민영익을 전권 대표로 하는 사절단, 즉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페스터 아더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여 조약 비준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의 주선으로 4개월 동안 미국에 주둔하면서 서양의 제도와 과학 기술을 돌아보았고 유럽까지 살펴보기도 하였다.

우연히, 보빙사 일행이 만난 가우처(John F. Goucher)는 1883년 11월 6일에 감리교 해외

선교본부에 선교에 대한 2천 달러의 현금을 하고 “크리스천 아드보케이트”(The Christian Advocate)의 편집장을 통해 논설을 실어서 한국 선교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1883년 미국 감리회 총회 선교위원회(General Missionary Committee)는 한국에 선교할것을 결의했다.(김재엽, 2006: 91-93) 이 결의에 의거하여 1884년 6월 23일 일본선교사인 맥클레이 박사 (Robert S. Maclay)가 한국에 주둔한 미국 공사관에 들어가서 선교 상황을 탐방하였고, 일본에 주둔했었던 김옥균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한국 정부에게 교육과 의료 사업의 유희를 받았다.(R.S.Maclay, 1896: 498-502) 물론 이 유희는 김옥균의 갑신정변으로 위기를 겪기도하지만 그대로 추진되었다.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를 교육사업의 명목으로 한국에 파견하였으며, 1885년 배재학당이 시작되었다.

2. 아펜젤러와 배재학당의 설립

배재학당의 첫 연례보고서¹⁾는 1885년에서 89년 처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된다. 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1885년 배재학당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국왕의 호의로 현판을 받았다. 그리고, 1886년 6월, 7명의 청년이 입학한 가운데 예비학교가 시작되었고 그 해 개학했다.

그렇다면 배재학당을 통해 아펜젤러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배재학당의 어떤 정신이 문화 변용이 가능하게 한 것일까? 우리는 이 생각에 대한 단서를 두 가지 연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글은 1897년 8월 13일 개국기념일에 독립협회에서 행한 아펜젤러의 연설문 “The Obligation of Foreign Residents to Korea”이다.

다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외국인은 한국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극동의 이태리로 멋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인구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 . . 그는 한국이 극동의 문명에 지대하게 공헌해 왔으며, 또한 이곳의 문명은 유럽에서의 문명과 유사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사상과 발명품들은 이웃의 모든 나라들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대가가 말한 훌륭한 찬사입니다. . . . 우리는 그런 경험에 다만 이 나라의 통치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을 믿읍시다. 과거 한국의 탁월한 사상들은 평화의 사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한국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이만열, 1985: 386-38)

또 하나의 글은 배재학당의 설립 이유이다. 그는 자신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는 배재학당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리는 통역관이나 학교의 일군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欲爲大者當爲人役)’를 교훈으로 정했다.(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1993: 1885년 연례 보고서)

이 두 가지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두 가지 마음

1) 연례보고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편, Annual report :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 Korea mission 1884 - 1943,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에서 나온 자료이다. 이 책은 연도 별로 기술되고 있으며 1885년과 1896년의 보고서에서부터 배재학당이 나오고 있다. 이에 1885년 연례 보고서부터 찾아서 기술하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 나오는 자료는 연도와 연례 보고서라고만 표기하도록 할 것이다. 직접 인용한 글은 이만열 편, 『아펜젤러』의 번역을 인용하였다.

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아펜젤러는 한국 문화를 미개하다 생각하고, 문화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좋은 점들을 찾아내고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당신 한국 문화를 보았던 다른 이들의 견해와 상반된다. 아펜젤러의 전기집의 썼던 그린피스조차도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미개한 한국에 과견된 뛰어난 인재이며, 잘못 소비된 아까운 사람으로 아펜젤러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배재학당을 통해 한국 문화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 이런 아펜젤러의 생각은 배재학당의 교육과정에 여실히 드러난다.

둘째,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통해서 자유교육²⁾의 이념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892년 연례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학교의 목적은 통역관이나 교환수를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선 선교사 두 명도 학교출신이며 전도사 한명도 학교출신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자유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은 자유교육을 의미한다.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시민 교육을 지칭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관조하는 능력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이것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정의하였다. 관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합리적 마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현대 교육철학자 허스트는 ‘지식의 형식으로서의 입문’으로 합리적 마음의 개발로서 자유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의 백성들을 도구로 보고, 도구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근대식 교육과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펜젤러가 한국문화에 접목하고자 하였던 서구 사상은 서구의 도구적 교육이 아니라 자유교육이었다.

아펜젤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받았던 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아펜젤러는 독일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했던 필라델피아의 개혁교회의 전통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한 후 집에 돌아오면 그의 부모님은 독일어로 성경공부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적 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일문화와 미국문화라는 두 가지 문화 속에서 성장한 아펜젤러가 선교에 헌신을 하고, 다른 문화의 장점을 찾아내는 간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것은 그러한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웨스트 체스터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된다. 웨스트 체스터 사범학교는 공립학교로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아펜젤러의 집안은 가난한 편이었지만,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공공 대학에서 발달시 가르치는 기술과 교육의 기본기를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과정으로 진학한 곳은 프랭클린 앤 마셜 대학 이 학교는 지금까지도 자유교육의 이념

2) 자유교육이란 고대 희랍의 “자유인의 교육”(the education of free men)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마음이 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는 일, 마음의 오류나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인간의 행동이 그릇되지 않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자유교육의 핵심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데, 서구 역사상 자유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었다. 고대희랍에서 자유 교육은 인간의 이성 발달을 추구했다면,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유교육이 신과 진리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었으며, 산업혁명 이후는 교육 프로그램이 고전 중심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이 전통을 계승해 온 허스트는 “자유교육과 지식의 본질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허스트, 1962)에서 자유교육의 정신을 경험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온 전통과 제도 속으로 입문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입문이란 지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의 틀 속에서 인류 유산 속에 들어있는 사고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지식의 형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지식의 형식이 아펜젤러의 교육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허스트가 정의했던 자유교육의 기본정신은 아펜젤러의 교육관과 일치한다. 아펜젤러는 자유교육에서 말하는 전통적 사상의 이해를 서구에 한정하지 않고, 한문과 중국 고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인들 속에 들어있는 전통적 사고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자유교육의 이념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을 추구하는 자유교양대학 (liberal arts college) 으로서 1787년 6월 6일 펜실베이니아 랭카스터에서 프랭클린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학교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새로운 교육기관에 200달러를 기부했지만, 이 학교는 펜실베이니아의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목표는 ‘우리가 가진 정부의 종교적 시스템을 보존하는 것(to preserve our present republican system of government)’과 ‘존경받을만하고, 대단하고 행복한 to promote those improvements in the arts and sciences which alone render nations respectable, great and happy’였다. 즉, 공화정의 원리와 인문과 교양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이 학교의 설립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설립 초기 프랭클린 앤 마셜 대학은 독일어와 영어 과정을 함께 제공했는데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특히 독일 문화와 미국 문화라는 두 가지 문화 현상을 자유교육의 전통 속에 아우르며 학생들을 지도했던 분위기는 아펜젤러가 수학하던 시기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랭클린 앤 마셜 대학교는 배재학당의 설립에 중요한 모델을 제공한다. 아펜젤러는 프랭클린 앤 마셜 대학교와 같이 이중 언어를 사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였고, 언어 뿐 아니라 자유교육에 필요한 과목들, 언어, 역사, 수학 등의 과목을 배치하고 토론과 창작활동을 통해서 직업 교육이 아니라 인문교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자유교양대학 (liberal art college)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다. 아펜젤러의 배재학당에 관한 첫 연례보고서이다.

서구의 대학들은 그들의 후원자들에게 대학의 목적, 규모, 사업 등에 대한 진술을 제출해 온 관습을 따라서, 배재학당은 이 팜플렛을 그 첫 번째 연례서신으로 제출한다. 그 서문으로서 학교 역사를 간단히 고찰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배재학당을 조직하려는 첫걸음은 1885년 가을에 취해졌다. 한국 청년들에게 쉽게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교육제도와 교육 방법의 핵심들이 한국의 대군주 전하에게 올려졌고, 자비로운 국왕은 그것을 윤허하였다.

그 뒤에 외부대신(외부이문독판) 김윤식 경이 국왕의 호의의 표시로 학교 현판과 가장 적절한 이름“The Hall for the Training to useful Men”을 전해 주었다. 1886년 6월 7명의 청년이 입학한 가운데 아펜젤러에 의해서 예비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 수는 계속 증가했고, 그 해 가을 학기는 가장 전망이 밝은 등록 숫자를 기록하면서 개학했다. 얼마 후 학생 가운데 7명이 정부에 채용되어 민간 업무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비 학교는 교양학부로 성장할 것이고, 일 년 후에는 대학과정의 개설 소식을 전하기를 희망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보다 크고 편리한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서양식의 넓은 새 벽돌 건물이 도시의 서쪽에 설립되었다. 이 새로운 고향으로 학교는 1887년 11월 1일 이전했으며, 구 건물은 기숙사로 개조되었다. (이만열, 1985: 331)

위의 글을 보면, 아펜젤러는 미국의 교육 제도와 교육 방법을 한국에 적용하기를 원했고, 국왕은 이를 윤허하면서, “The Hall for the Training to useful Men” 즉, 배재학당이라는 현판을 내려 주게 된다. 이를 통해 배재학당이 시작되었고, 아펜젤러는 통역관 등을 목적에서 끝내지 않고 이것을 예비학교로 삼아, 이 교육과정을 교양학부로 삼고, 대학과정의 개설을 희망하고 있다. 아펜젤러의 이런 꿈은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배재학당의 기초와 목표가 되었다.

3. 배재학당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

유길준,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사상가들은 개화를 추진하고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용하

고 학교를 세울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개화를 허용하고 선교사들의 입국을 유포했을까? 개화파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보도록 하겠다. 이 책은 1895년 나온 서양 소개서이자 구당 유길준이 미국에 유학하고 유럽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과 개화사상을 지필한 책으로서 계몽기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한국 개화기의 국민 교과서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김태준, 2004: 65-80)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는 한 편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개화를 주장하였다. 그의 개화사상은 실학의 통상 개국론과 중국의 양무운동, 변법자강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일본의 문명 개화론과 서구의 천부인권론 그리고 사회 계약론의 영향을 받았다. 입헌군주제와 상공업 무역의 진흥, 근대 화폐 및 조세 제도 수립, 근대 교육 제도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이 개화에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하였다. (윤병희, 1998, 유동준, 1990)

『서유견문』에서 유길준은 개화가 다른 나라를 따라 하는 것이거나 서양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개화 또한 한국 스스로의 변화라고 인지하였다. 그는 능동적인 개화를 통해서 한국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개화파들은 그들의 사상을 정리하고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4. 문화제국주의와 배재학당

문화적 제국주의란 서구 국가가 비서구 국가에게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해서 다른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재학당에서 나타난 모습은 문화제국주의의 모습이랄기보다는 개인들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일어난 상호문화주의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이 상호문화주의 모습을 가지는 이유는 서구화를 일으킨 문화 주체가 서구 국가의 무력에 의해서 진압된 식민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한국에 서구 문명을 전해 준 이들의 출신은 대다수 19세기 미국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이었다. 복음주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제국주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유대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그에 따르면 복음주의 기독교가 선교에 있어서 문화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근대 선교의 주역인 미국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국가의 힘을 빌려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선교를 사업과 같이 사적인 영역에 두었다. 사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프랑스는 천주교 선교를, 러시아는 정교회 선교를, 영국은 성공회 선교를 도왔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미국 공사라고 말했다. 아펜젤러는 “때때로 저는 방해가 조선정부로부터가 아니라 여기 미국 공사관으로부터 온다고 느낍니다.”고 말했다. (유대영, 2004, 251)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의 명예 교수이자 역사학자 워렌 코헨(Mattie Wilcox Noble)은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의 문화는 상호 교류적 측면이 크다고 기술하고 있다.(하세봉, 2003: 109-125)

둘째, 선교사들이 속한 복음주의 기독교는 인격적 결단 없는 강요를 반대하고, 복음주의 기독교는 서구 문명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또한 이방문화를 다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1888년 북감리회 선교사 프랭클린 올링거(Franklin Ohlinger)의 다음 말에 잘 드러나 있다.

“비록 이교적이지만 문명화된 일부 좋은 풍속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자. 우리에게 낯설게 보이는 일

부 다른 풍속은 그 자체로 순수하다. 또 처음에는 완전히 틀리게 보이는 풍속도 필요하며, 자세히 연구하면 두 악 가운데 덜 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조현범,2002: 115)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이방 문화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서구 문명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셋째, 선교사들은 서구문명의 전파가 선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장로교 선교사였던 마포삼열은 “문명은 기독교가 아니다. 서구의 사상, 관상, 발명품을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적기독교의 소개이지, 서구 문명의 소개는 아니다.(조현범, 2002,11)”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선교사들이 문화적 제국주의를 위해서 한국에 입국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측면이 존재한다.

Ⅲ. 배재학당의 교육과 상호문화주의

1. 배재학당의 목적

배재학당의 목적은 서구의 과학과 문학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며, 현존하는 학교 체제의 본질적인 특성과 결합시킨 것이라고 아펜젤러는 지적한다. 서구의 과학과 문학에 대한 훈련은 자유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유 교육을 서구식의 교육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 교육을 합리적 마음의 개발로 폭넓게 해석하고, 자유교육의 실행을 위해서 중국과 한국에 존재했던 사유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³⁾ 이런 아펜젤러의 생각은 1897년 8월 13일 개국기념일에 독립협회에서 행한 연설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원제는 “The Obligation of Foreign Residents to Korea”이다.

다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외국인은 한국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극동의 이태리로 멋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인구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이 극동의 문명에 지대하게 공헌해 왔으며, 또한 이곳의 문명은 유럽에서의 문명과 유사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사상과 발명품들은 이웃의 모든 나라들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대가가 말한 훌륭한 찬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다만 이 나라의 통치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을 믿읍시다. 과거 한국의 탁월한 사상들은 평화의 사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한국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이만열, 1985:387)

2. 교육과정

그는 한국의 사상을 존중하고 한국 사상 속에 들어 있는 사고의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영어 교육기관으로 배재학당을 인식하고 한문 및 중국 고전 과목을 배재학당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던 한국정부와 달리, 아펜젤러는 기존의 사유를 주도했던 한문 및 중국 고전 과목을 교과과정에 필수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그 바탕위에 영어와 서구학문을 가르쳤다. 중국 고전은 중요한 교과였고,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중국고전과목을 공부해야만 했다. 그렇게 형성된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예비 과정부 (preparatory department)

① 1학기- 영어 : 독본 1권

3) 조선 말까지 한국의 교육과정은 한문과 중국고전강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② 2학기- 영어 : 독본 2권, 철자

한문 : 언문

2) 교양 과정부(Academic department)

① 1학년

영어: 기초문법, 산수 초보, 독본3권, 4권, 철자, 쓰기 및 노래 부르기,
한문, 언문

② 2학년

영문법, 산수(10진법까지) , “일반과학”, 독본 5권, 철자, 번역,
쓰기 및 노래 부르기, 학문, 언문

③ 3학년

영문법, 영작문, 산수,

한문, 언문, “일반과학”, “지식의 계통”, 어원학, 미술, 노래부르기(이만열, 1985: 330)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과정의 중요한 두 기둥은 한문과 언문이었다. 한문과정을 통해서 아펜젤러는 기존에 존재했던 중국 고전을 통한 학습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기초과정에서는 영어를 교육시키고 산수와 음악교육이 추가되었다. 이후 일반과학으로 영역이 확대되었고, 3학년 때는 영어 뿐 아니라 지식의 계통과 어원학 같은 고차적인 학문이 가르쳐 졌다.

기독교 선교사로서 아펜젤러의 가장 큰 관심은 기독교 복음 전파였지만 그는 유교와 기독교를 상반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교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 아펜젤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한국: 그 현장과 활동 현황 및 전망

유교는 윤리 체계이다. 더 높은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인에게 “의무의 개념과 도덕의 기준”을 주었다. 어느 제자들이 어떻게 신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거늘 어떻게 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고 응답했다. 장군 이 홍장이 내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지금의 일이 너무 바빠 미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말로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유교신자인 것 같다. 한국의 관료들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거의 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감리고 친구요 지도력과 애국심을 지니고 있으며 왕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 셋 가운데 하나인 윤치호 선생은 몇 년 전에 출판된 글에서 유교는 도덕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인간을 뛰어넘는 높은 이상을 알지 못하므로 불가지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가서 가르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와서 배우라고 한다. 인간을 불가능한 교훈에 묶어둠으로써 인간을 비열하고 좁고, 계산적이고 공격적이게 만든다. 또 매일 변명만 하고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 ... 그는 또 유교는 여자를 천히 여기고 노예처럼 취급하며, 그에 따라 여자는 자기가 바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쫓겨난 공자의 아내가 죽은 지 일 년 되는 해에 그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자 공자는 주위의 빈축을 샀다. 아직 아버지가 생존에 있을 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유교는 규범을 통해 백성을 선하게 만드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현자는 개개인의 개혁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품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아펜젤러가 1901년 1월 21일, 필라델피아의 전도자 모임에서 강연한 글이다. 위의 글은 이만열 편, 『아펜젤러』에서 인용하였다)

이상의 글을 통해서 아펜젤러는 유교를 도덕계로 인지하고 유교를 통해 한국인들이 도덕적 의무감을 배울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 아펜젤러는 의 말을 통해서 당시 유교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폐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유교적 공동체문화를 가지고

있던 조선의 관습을 무시하기보다, 그 안에 가진 도덕 체계를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을 전개하고자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04년 감리교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펜젤러는 유교적 소양이 부족하면 조선에서 학자 축에 못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고 1894년 한문과를 개설하기 위해 조선인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는 한문 교육을 통해서 조선 사회의 문화를 함께 가르치기를 원했다. 1897년 배재학당 방학식에서 조선 역사 등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했다는 구절을 살펴보면 조선의 역사교육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배재학당에서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배재학당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서 서양식 교육과 결합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점은 길버트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길버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한문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서양에서 학생들이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고전을 배우는 것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어려운 언어를 숙달하려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신적 도야다. 단지 윤리체계인 공맹의 가르침은 결함이 없고, 편향되리만치 효과 가치가 강조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심할 바 없이 아름답고 진실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말 안에는 상당정도 중국의 고사성어가 불박혀 있으므로, 먼저 한문에 숙달되지 않고는 한국말을 완전히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7.14. (배재학당 방학식))

배재학당의 한국인 교사들 또한 서양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한국 문화와 비교하며 결합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유교의 보유론적 입장인데 유교적 교양과 기독교 지식의 결합으로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해 내었다. 최병헌은 유교와 기독교를 결합하면서 기독교를 유교와 대립되지 않는 진리로 소개한다. 최병헌은 그 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만 믿는 고로 오론과 삼강이 아주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전국 인민이 일심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아펜젤러와 교사들의 이와 같은 인식과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문화에 새로운 문화를 결합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한국 교육과 다른 배재학당의 독특한 점은 전통적인 한국 교육기관에서 실시되지 않던 언문 교육 즉 한글 교육이 한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유교식 양반 관료제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에서 한글은 여성이나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였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한글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여자 혹은 어린 아이들의 글자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초기부터 한글 교육을 중시하고 실시하고 있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선교사들의 선교 목적에 더 적합한 언어가 한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19세기 미국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9세기 미국 성결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성경을 직접 읽고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 선교사들이 입국한 목적에 더 적합한 언어가 한문이 아니라 한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복음주의 선교의 기독교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입교시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신분고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문은 지식인층이 독점하고 있던 언어였고, 선교사들은 선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언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경전인 성경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읽게끔 하였

다.(『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6.23.)

둘째, 선교사들이 받았던 교육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서양의 교육은 근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대교육이란 근대국가의 성립 및 자본주의 사회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된 교육을 의미한다. 국민국가는 중세 기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속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언어와 역사 중심의 근대교육체제를 완성하였다. 선교사들 또한 신학적 훈련을 받았지만 신학 훈련 이전에는 근대 교육 체제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언어와 역사를 바탕으로 민족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정부와의 공조 속에 국민국가의 형성을 추구하였다.(정재걸, 2006: 533) 이들의 이런 생각은 배재학당의 협성회 조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며, 아펜젤러는 근대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협성회와 독립협회의 활동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다가 도망친 학생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배재학당은 초기부터 언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문 및 중국고전교육을 강조하였다. 자유교육의 이상을 바탕으로 국민국가로서 조선을 인정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새롭게 구성된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로 배재학당 학생들은 전통적 교육 기관에서 학문을 습득했던 학생들과 다른 관점과 견해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이러한 관점과 견해는 서구의 사상과도 다른 것이었다. 예를 들어, 배재학당의 학생인 주시경은 한글의 체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의 문법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을 정비하였으며, 이것은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한글 문법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한국문화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융합의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배재학당 교사 출신이 서재필과 주시경등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독립협회는 또한 언문 학습의 영향으로 독립협회의 활동에서 언문을 주언어로 사용하였다.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 우리말 신문으로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김태준, 1969: 11-19. 최현배,1962: 51-76)

3. 아펜젤러와 서재필 그리고 윤치호

언어 뿐 아니라 배재학당은 역사 및 토론 활동 등 자유 교양 교육을 위한 기본 과목들을 통해서도 한국 문화와의 결합을 추구하였다. 아펜젤러는 부지런히 자유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고, 1888년에서 1889년경에는 대학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산수, 기하, 일반과학, 지식의 계통 어원학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배재학당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교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이유로 망명했던 서재필과 윤치호가 1895년 갑신정변에 대한 사면령으로 귀국하자 배재학당에 교사로 고용하였다. 서재필과 윤치호는 젊은 시절 유학을 학습하고 관료로 활동했던 인물들로 갑신정변으로 인해 외국으로 망명하여 서구 학문을 익힌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를 체득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망명 중 서구에서 고등 교육을 받고, 서구의 학문을 익히면서 두 가지 문화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학습한 인물들이다.

서재필은 18세에 장원급제하였다. 김옥균의 영향으로 개화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일본으로 유학가서 게이오 의숙에서 일본어를 학습하였으며, 귀국 후 개화파와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일본으로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여 자선사업가인 홀런백(John Wells Hollenbeck)을 만나서 1886년 해리 힐맨 고등학교(Herry Hillman Academy)에 입학 후 1889년 졸업하였다. 이 학교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등을 배우고 워싱턴으로 이주 컬럼비안 코크란 대학(Columbain Universty, 현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전신)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고, 1883년 의사면허를 받았다. 그리고 미 육군 의학 박물관에서 동양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하였다.

사면령으로 귀국하면서 아펜젤러의 요청으로 세계사를 가르치게 된다. 배재학당의 교사였던 멩커 (Dalziel A. Bunker)는 1896년 감리교 연례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몇 달 전부터 서재필 박사가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연속강의에 대해 특별히 말하고 싶다. 이 강의는 예배당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언제나 학생들로 의자가 꽉 메워진다. 강의는 조선말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럽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지도 위에 그 지역을 표시하고 나서 일반 역사와 교회 발달사를 훤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강준만, 2007)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고, 1896년 학생들과 함께 협성회를 만들어서 토론 모임을 주도하게 되었다. 협성회를 기반으로 한 이 모임을 통해 독립협회가 이루어졌으며, 만민공동회 등의 계몽 사업을 펼치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임창영, 1987; 이정식, 2004; 강준만, 2006.)

윤치호는 박규수 문하에서 수학하던 중 서재필, 김옥균 등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으로 유학 동인사에 입학하여 일본어와 영어를 수학하였다. 갑신정변 후 주한미국 총영사 G 스탈의 도움으로 감리교 선교사 A.J 앨런이 세운 중서서원(the Anglo Chinese College)에 입학하였다. 중서서원 입학 전 상하이에서 그는 울분과 두려움으로 거의 폐인이 되었다가 기독교를 접하고 바로 개종하기보다 기독교를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 후 1887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1888년 미국으로 가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조지아 주(State of Georgia) 옥스퍼드 대학 (University of Oxford) 을 입학하였다가 중퇴하고, 1891년 에모리대학(Emory university)에 진학하여 인문사회와 과학, 자연 과학 등을 수학하고 1893년 졸업한다. 대학원과 장학금을 뿌리치고 그는 배편으로 조국을 위해 귀국한다. 그는 청나라 상하이에서 중서서원교사로 활동하고 남궁억을 만나서 1893년 무궁화 지정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1895년 귀국한 그는 이상재, 서재필, 이승만 등과 독립협회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서재필과 함께 배재학당에서 과학을 한국어로 강의하였다.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1998; 김상태, 2001; 최종고,2002;), 김영의, 1999)

이들의 등장은 배재학당의 자유교양교육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들은 유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었고, 유학과 기독교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서양의 지식을 가르쳤다. 이해 가능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배재학당의 자유교양교육은 한국인들에게 서양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배재학당은 해외유학에서 돌아온 David H.R.을 교사로 고빙했고, (감리교 연례보고서, 1900)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했다. 양홍묵은 한문본 웨필드의 『만국사』 등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자유교양의 틀은 넓어져갔다. 배재학당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실상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리, 역사와 산술, 기하, 과학 등이 가르쳐 졌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배재학당 학생들은 국내외 정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유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지적, 정신적 훈련의 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 스스로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토론학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주도로 협성회가 조직되었고, 협성회가 주도한 토론회는 생각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협성회는 200명이 넘어갈 정도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협성회를 기반으로 독립협회가 조직되어서 사회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강준만, 2007)

이상의 내용을 통해 배재학당에서 상호문화주의 교육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사들 간에 상호 존중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펜젤러는 한국인을 신뢰하고, 능력 있는 한국인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서재필과 윤치호와 같은 인물들을 교사로 등용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었다. 독립신문 활동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서재필과 윤치호 모두 정치적 이유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 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이것을 아펜젤러에게 맡긴다. 아펜젤러와 서재필 윤치호 모두 같은 이상을 품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이중 언어를 통한 깊이 있는 교양 교육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배재학당과 상호문화주의 교육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핵심은 관계 속의 개인, 개인들의 문화 접촉, 그리고 변용이다. 관계망 속에 놓인 개인은 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써 그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비교하고, 그 가운데 다른 문화에 존재하는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나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문화로 그리고 다시 나의 문화로 나선형 과정을 통해서 문화를 변용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 변용은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 전체로 파급되며, 사회 전체는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어 간다.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의 주체로서 개인을 신뢰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배재학당은 이러한 상호문화주의 교육이 실제로 실행된 좋은 예이다. 배재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와 선교사들은 자유 교육을 기초로 한국 전통 교육 속에 들어있는 고유한 가치와 비교하면서 교육적 접점을 찾아냈다. 배재학당의 교육 목적은 자유 교양인의 양성이었다. 아펜젤러는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자유 교양인의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언어와 수학 및 교양 교육을 실시해 나갔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내려오고 있던 전통적인 사교를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배재학당은 한국의 전통 교육에서 실시되었던 한문 및 중국 고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한국인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법적으로 한문 교육으로는 대부분 한국인의 정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서 무시되었던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로 통해서 서구 자유 교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두 개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 변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배재학당은 한국인들이 최대한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아펜젤러가 실행했던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핵심은 학생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신뢰였다. 앞에서 제시한 독립협회 연설문에서 아펜젤러는 한국인의 문화를 존중하며 한국인을 믿어야 하며, 미래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한국인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배재학당은 서구의 전통 교육의 전통 이념이었던 자유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적 교육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 신뢰로 인해 학생 개개인들은 배재학당의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비교하고, 그 안에 가진 가치를 찾으며, 새로운 문화로 변용시키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문화 변용은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변용과 한글의 발전은 학생들의 문화 변용능력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서양식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접한 학생들과 한국인 교사들은 기존의 유교식 정치 이데올로기를 변용시키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 한국을 꿈꾸

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토론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이 토론회를 기반으로 독립협회와 같은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다. 배재학당의 인물들이 주축이 된 독립협회는 외세에 의해서 힘을 잃고 아관파천을 했던 고종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고, 만민공동회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신분적으로 배척되었던 백정조차 평등하게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이루어 내었다.

또 다른 사례는 한글의 발전이다. 배재학당의 학생이었던 주시경은 한문 교육을 받을 때, 학생들이 우리말 단계에 가서야 의미를 깨닫는 것을 보고 한글과 한문의 차이를 인식하였다. 배재학당에 입학한 주시경은 영어와 서양 학문을 익히면서 본격적으로 한글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영어체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글에도 유사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영문법을 공부하여 언어 이론학을 정립하였고, 교사였던 서재필이 주도했던 협성회와 독립협회의 활동에서 회계 및 교정을 맡아서 활동하였다. 특히 한글 신문인 협성회보와 독립신문의 교정을 맡아서 한글 발전에 공헌하였다. 1896년에는 독립신문사 안에서 국문동식회를 결성해서 한글을 적용하고 맞춤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 등 실제적인 국어 연구를 시작하였다. 문화 접촉을 통해 주시경이라는 개인에게 주어졌던 깨달음은 한글 신문과 같은 새로운 문화의 출발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 변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 사회에서 한글이 한국 교육의 기초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이규수, 2014)

이와 같이 학생들의 잠재성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진 배재학당의 상호문화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문화변용의 주체로서 낯선 문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

IV. 결론

근대화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낯선 서양 문화와 조우해야 했고 다문화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낯선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설립한 배재학당은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통해서 두 가지 문화를 비교하게 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중첩되는 영역을 발견하고, 변용이 주체가 되어서 전통 문화에 새로운 문화를 결합시키는데 성공했다.

배재학당이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사들 간에 상호 존중과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신뢰였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운영하면서 미국인 교사들 뿐 아니라 한국인 교사들을 고용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동시에 윤치호와 서재필 같은 인물들을 초빙해서 넓은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 아펜젤러를 비롯한 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 간에는 상호존중의 태도가 형성되었고, 중요한 상황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뿐 아니라 아펜젤러는 한국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신뢰하였다. 그리고 그 신뢰를 기초로 이중 언어, 그리고 한국 교육 시스템과 서구의 교육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배재학당은 아펜젤러의 믿음처럼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개화기 문화 갈등은 현대에 더 확산되고 있다. 개화기 상황이 서구문화와 한국 고유문화 사이에 갈등이라면 현대는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화기 때 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핵심은 같은 문제이다. 개화기 조선의 사람들과 선교사들 또한 문화적 갈등을 겪었으며 그것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

해서 상호문화주의적인 태도로 임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교육의 결과로 배재학당을 근대식 선교회 학교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후 형성된 선교회 학교들은 배재학당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다.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충돌하는 현대의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개화기와 유사하다.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잠재력을 신뢰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이 이런 문화적 변용이 그들이 가진 관계망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교육해야 한다. 그럴 때 개화기 한국인들처럼 지금의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우리와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1차 문헌 및 번역서

-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84-1943
Dubbs, Franklin and Marshall.
George 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 School Work, 1892.
William E. Griffis,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66
G.Appenzeller, Fleming H. Revell Co.,1912.
Henry G. Appenzeller's diary.
Mattie Wilcox Noble's diary.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7.14. (배재학당 방학식)
헨리 G. 아펜젤러(1888). 노종해 역. 『자유와 빛을 주소서- H.G 아펜젤러의 일기(1886-1902년)』.서울:대한 기독교 서회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 편(1993). 『감리교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84-1943)』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J.S 게일(1999). 신복룡 역. 『전환기의 조선(Korea inTransition)』.서울: 집문당.
매티 윌콕스 노블(2010). 강선미, 이양준 역. 『노블일지 1892-1934』.서울: 이마고.
윈스롭 허드슨, 존 코리건(2008). 배덕만 역 『미국 종교사』.서울: 성광문화사.
韓國基督教史研究會(1986) The Korea mission field : 號別目次集 (1905.11-1941.11) 서울 : 韓國基督教史研究會.

2. 국내 저서

- 강준만(2007). 『한국근대사 산책3』. 서울: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2006). 『현대사 산책 :1940년대편』. 서울: 인물과 사상사.
김상태(2001). 『윤치호 일기』. 서울: 역사비평사..
곽안련(1994).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박용규, 김춘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김양선(1956). 『한국 기독교 해방 십년사』. 서울: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金仁會(1983). 『교육과 民衆文化』. 서울 : 한길사.
김재엽(2006). 『100년전 한국사 - 개항에서 한일합방까지』. 서울: 살림출판사.
김제방(2009). 『한국근현대사』. 서울: 문학공원.
김백일(2006). 『근대를 다시 읽는다』. 서울: 역사와 비평사..
김영의(1999). 『좌옹 윤치호 선생 약전(윤치호선집2)』. 서울: 좌옹윤치호문화사업위원회.
노용필(2004). 『대한 제국기 서울 사람들』, 서울: 어진이.
손정숙(2005). 『한국 근대 (1883-1905) 주한 미국공사 연구』. 서울: 한국사학.
박성진(2003). 『사회진화론과 신민지 사회사상』. 서울: 도서출판 선인.
박재문(2001). 『한국교육사』. 서울: 학지사.
백낙준(1973). 『한국개신교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편(2010). 『아펜젤러와 배재학당』, 서울: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손정숙(2005). 『한국 근대 (1883-1905) 주한 미국공사 연구』. 서울: 한국사학.
손인수(1998). 『한국교육사 연구(하)』. 서울: 문음사.
송방용 등,(2011). 『배재와 나, 구술채록 2010』. 서울: 배재학당역사박물관.
吳天錫(1964). 『韓國新教育史』. 서울 : 現代教育叢書出版社.
신용묵(1955). 『배재사, 창립 70주년 기념출판』.서울: 배재중고등학교.
신동준(2009). 『개화파 열전』,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유길준(2004). 『서유견문』, 허경진 옮김, 서해문집.
윤성렬(2004). 『도포입교 ABC 갖 쓰고 맨손체조』.서울: 학민사..

- 이만열편(1985). 『아펜젤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만규. 『朝鮮教育史 上-下』, 서울 : 乙酉文化社, 1947-49.
- 이성전(2007).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 교육』.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규수(2014). 『주시경 한글의 빛을 밝힌 어문민족주의자』. 서울: 역사공간.
- 임경석, 진재교(2006).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근대 인식과 정책』.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임창영(1987). 『서재필 박사 전기』. 서울: 공병우 글자판 연구소.
- 이황직(2007). 『독립협회 토론 공화국을 꿈꾸다』.서울: 프로네시스.
- 이정식(2004). 『구한말의 독립투사 서재필』.서울: 서울대 출판부.
-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1998). 『윤치호의 생애와 사상(윤치호선집1)』. 서울: 을유문화사.
- 최종고(2002). 『인물과 전기』.서울: 한들출판사.
-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1989). 『한국 기독교 역사1』. 서울: 기독교문사..
-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2007).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 교육』.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한규원(2003). 『한국 기독교 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홍선표(2006). 『근대의 첫 경험- 개화기 일상 문화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출판부.

3. 논문 및 정기간행물

- 김현숙(1999). “한말 조선정부의 고문관정책”, 『역사와 현실』,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 김태준(2004).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대하여” 『한민삼주시경연구』 17.
- 김태준(1969). “기독교의 선교와 한글의 민중화” 『새국어교육』 제12호, 서울: 한국국어교육학회,
- 류방란(1984).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한국교육사학회』 19.
- 유영렬(1984). “개화기 윤치호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윤병희(1998). 『유길준 연구』.서울: 국학자료원, 1998.
- 유동준(1990). 『유길준 전』.서울: 일조각, 1990.
- 이광린(1999). “육영공원의 설치와 그 변천”, 『한국 개화사 연구』.서울: 일조각.
- 이은송(1985).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교육론 구성 전사-미국 유학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8. 丁淳佑, “18世紀 書堂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慎鏞廈(1980).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韓國 近代史와 社會變動』, 서울 : 文學과 知性社.
- 조계건(2005).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서울: 도서출판 푸른 역사.
- 최현배(1962). “기독교와 한글” 『神學論壇』 7.